

만평 속 노무현대통령 탄핵 연구

A Study on Impeachment of President Roh Moo-hyun in Editorial cartoon

박 경 철
조선대학교

Park keong-cheol
Chosun University

요약

‘노무현대통령 탄핵’이 2004년 3월 12일에 발생하였으며, 시민은 촛불시위로 탄핵을 반대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5월 14일에 탄핵소추를 부결하였다. 본 연구는 ‘노무현대통령 탄핵’을 소재로 하는 경향신문의 만평을 분석하였으며, ‘만평의 표현’과 ‘만평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만평 속 ‘노무현대통령 탄핵’을 분석하였다.

I. 서론

노무현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 되었다. 야당 국회의원 195명이 투표하여 193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에 찬성하였다. 2016년에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다. 2004년 탄핵 소추된 노무현대통령과 2016년 탄핵 소추된 박근혜대통령 사이에는 ‘탄핵반대 촛불시위’와 ‘탄핵 촛불시위’의 큰 차이점이 있다. 즉 국민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2004년의 의미는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 2016년과 다를 수밖에 없다. 2004년의 탄핵 반대 촛불시위는 정략적인 야당정치인들의 탄핵소추를 탄핵반대 촛불시위로 저지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본 연구는 노무현대통령 탄핵으로 한정하여 만평을 분석하였다. 만평은 ‘탄핵소추 이전’과 ‘탄핵소추일부터 탄핵부결일까지’, ‘탄핵부결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경향신문의 <김용민의 그림마당>으로 한정하였으며, 총 16작품이다. [표 1]을 보면, 탄핵소추 이전은 5작품, 탄핵 추일부터 탄핵부결일까지 10작품, 탄핵부결 이후는 1작품이다. 탄핵 소추일부터 탄핵부결일 중에는 3월에 9작품이 집중되어 있다.

연구방법으로 첫 번째, 만평의 표현을 분석하였다. 실제인물의 상징인 주연캐릭터와 조력자 또는 대립자인 조연캐릭터로 나누었다. 두 번째, 만평의 인물과 사건을 분석하였다. 인물의 풍자와 사건의 풍자라는 관점으로 나누었다. 만평은 실제 일어난 최근의 정치적 사건을 실제 인물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등장시켜 사건에 대해 풍자를 하는 장르다.

표 1. 탄핵을 소재로 하는 만평의 게재 현황

이전	탄핵(소추부터 부결까지)			이후
	3월	4월	5월	
2.27/3.6/3.9/ 3.10/3.11	3.12/3.13/3.14/3.16/ 3.17/3.18/3.22/3.23 /3.27	-	5.14	5.15
5	9	0	1	1

II. 만평의 표현

1. 주연캐릭터, 실제인물의 상징

만평 속 사건의 중심인물이 주연캐릭터 역할을 한다. 통상 만평의 주연캐릭터는 사건을 일으키는 악역으로써 풍자의 대상이 된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새천년 민주당의 조순형 대표다. 다음이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 최고위원이다. 이는 탄핵을 주도한 당이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었기 때문에 당의 대표성을 지닌 두 인물이 탄핵을 소추한 정치인들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순형과 최병렬은 총 16작품 중 13작품에 등장하는 주연캐릭터인 셈이다.

2. 조연캐릭터, 조력자 또는 대립자

주연을 조력하기 위해 조연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보통 조연은 주연과 동일한 집단이거나 주연의 행위에 동조하는 역할에 충실하다. 3월 13일 만평에는 의회쿠데타 193명에 속하는 대표적인 조력자 캐릭터(김종필, 박관용)가 나온다. 3월 14일 만평에는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가 조력자로 나온다. 조력자로서 언론이 등장하기도 한다. 언

론을 상징하기 위해 왕관처럼 펜촉을 쓰고 있다. 3월 6일 만평을 보면, '친일규명 안된다!'는 팻말을 든 언론 캐릭터가 나온다. 반면 주연캐릭터가 악역이기 때문에 조연캐릭터가 대립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때의 대립자는 적극적인 대립자이기 보다는 소극적인 대립자로 종종 표현되곤 한다. 3월 6일 만평을 보면, 눈을 치우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나온다. 주연캐릭터인 조순형 대표와 최병렬 최고위원, 조력자인 언론에 대립한다. 환경미화원은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다보니 날씨인들..."이라고 읊조린다. 주연캐릭터와 조력자에 대해 풍자를 '제정신 아닌 날씨'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Ⅲ. 만평의 인물과 사건

1. 인물의 풍자

만평은 주로 전날이나 당일의 일어난 최근의 사건을 풍자한다. 부정적인 정치·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인물을 캐릭터로 등장시켜 풍자로 비판한다. [표 2]는 탄핵소추 이전에 등장한 인물과 풍자인데, 3월 9일의 경우 조순형 대표와 최병렬 최고 대표위원이 청와대를 향해 구걸하는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표 2. 만평 속 인물과 풍자

일자	인물	풍자
2.27	조순형	나무 위에서 낚시하는 모습
3.6	조순형 최병렬	길에서 탄핵 팔이 하는 모습
3.9	조순형 최병렬	사과를 구걸하는 모습
3.10	조순형 최병렬	각목을 들고 가는 조폭의 모습
3.11	조순형 최병렬	총리의 꿈에 빠진 동상이몽의 모습

분석한 16작품의 만평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인물은 조순형 대표로 14작품이며, 다음이 최병렬 대표 최고위원으로 13작품이다. 탄핵소추의 대상이었던 노무현대통령이 주연캐릭터로 나온 만평은 1작품에 불과하다.

2. 사건의 풍자

[표 3]은 탄핵소추일 이후의 일부 사건을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3월 27일 사건의 경우 탄핵소추로 인하여 사퇴위기에 내몰린 조순형과 사퇴한 최병렬 두 인물을 포장마차라는 배경에서 '사퇴'라는 사건을 술에 취해 하소연 및 얼빠진 모습으로 풍자하고 있다.

표 3. 만평 속 사건

일자	사건
3.23	총선 앞둔 탄핵철회
3.27	탄핵소추로 인한 사퇴위기의 조순형
5.14	탄핵심판 부메랑
5.15	탄핵기각 책임 없이 아니면 말고

만평은 탄핵소추가 정치인들의 부당한 정치적 사건임을 풍자한다. 풍자를 통해 인물과 사건을 들추어냄으로써 문제를 인식하게 만든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소재인 '노무현대통령 탄핵'을 만평의 표현, 만평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분석하였다. 만평은 탄핵소추라는 큰 사건이 정치인의 잘못된 정치적 행위임을 풍자한다. 탄핵소추 대상인 대통령이 아니라 탄핵소추한 정치인을 풍자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첫 번째, 만평은 탄핵 소추한 인물을 풍자한다. 탄핵소추와 관련한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인물은 새천년민주당의 조순형 대표와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 최고위원이다. 이들은 주연으로 등장하여 난처하거나 당황하는 표정, 얼빠진 표정, 술 취한 모습 등을 통해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인물로 풍자된다.

두 번째, 만평은 탄핵소추라는 사건을 풍자한다. 만평은 언론의 사실 전달이라는 역할과 만평작가의 창의성이 결합하여 사건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풍자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물캐릭터 옆에 이름을 표기함으로써 대상이 누구인 지를 분명히 한다.

세 번째, 만평 속 인물은 악역의 주연캐릭터다. 만평은 사건을 이야기로 구성함에 있어서 1칸이나 2~3칸의 제한된 칸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다. 이로 인해 주연이 선한 인물이 아니라 사건의 장본인 즉 악한 인물인 것이다.

네 번째, 만평 속 언론은 풍자 대상인 주연캐릭터의 조력자다. 언론은 사실 전달과 여론 형성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거나 동조하고 부추기는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공익을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책임 있게 보도해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언론에 대한 조롱임에 분명하다. 3월 6일의 친일규명을 반대하는 언론, 3월 16일의 국민이 반대하는 탄핵의 불을 향해 부채질하는 모습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불공정하고 정치적인 모습을 풍자로 드러내고 있다.

■ 참고 문헌 ■

- [1] 신병률 "시사만화에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에 관한 비교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9권, 3호, pp.284-319, 2009.
- [2] 김용민, 김용민의 그림마당, 경향신문, 2004.02.27.-05.15.